

주 간



Keep It Simple and Short

2019학년도 수특영어 W5(21~27)

영어 노베이스에서 100점으로 이르기 위한 영어 공부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단어, 해석(문장 단위), 문풀(지문 단위).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바로, 세 번째 요소인 '문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는 국어, 수학에 비해 문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죠. 단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어 문풀은,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적당한 난이도의 영어 빈칸 지문 하나를, ebs 해석 말고 정성을 들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잘 번역했다고 합시다. 그럼 글을 '이해'하는 데 우리는 한국인이므로,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러면 문제를 푸는 '사고 논리' 자체는, 정말 스무살 지성인을 위한 수준일까요..? 대부분이 그 아래일 겁니다. 그러한 수준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 절평 영어 체제에서 많아봐야 두 문제고, 이마저도 절평이기에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상황이죠. 다시 말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이를 활용해 해석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수준이면 절평 영어 1등급에 거의 근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본인이 '공부하기 쉽게 느껴지는' 문제 풀이에 집착하지 마시고, 빨라도 6평까지는 단어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고민을 많이, 아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문풀 논리를 익히는 것은 6평 후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학생이라면 문풀 논리를 익히고 체화하는 건 한 두 달이면 됩니다. 제발, 수학 문제 하나를 두고 오래 고민하듯, 한 문장을 한 지문을 두고 어떻게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이를, 'EBS 영어'로 하는 겁니다. 기출 영어만큼 지문의 문풀 논리가 좋은 지문이 많은 건 아니지만, EBS 영어 지문도 단어와 해석을 위한 '좋은 영어 지문'임은 맞으니까요. 무엇보다, 고3 내신의 시험 범위이고, 6, 9, 수능에 '똑같은' 지문이 7, 8 개가 나오는데, EBS가 아닌 다른 교재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평가원 기출 제외)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BS 연계 교재 3권의 1000지문 가까이 되는 영어 지문의 모든 단어와 해석을 공부하면, 절평 영어 1등급에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평가원 기출로 문풀 논리를 병행하며 체화하고 그냥 100점 맞으세요 ☺

명심하세요. 고정 100, 고정 1이 나오는 친구들 중에, 문법 용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많습디다만, '해석'을 시켜보면, 예외 1도 없이, 다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곧잘 해석을 합니다.

1. EBS 연계 교재 해당 ‘강’을 시간을 재고 본다. 본인의 실력과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문제 당 1~2분을 설정하고 본다. 시간을 재고 풀어야 가장 집중을 잘한다. 뇌는.
2. 채점을 한다. 혹,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 많이 틀린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문풀의 기준은 평가원 기출.
3. 꼭, 이 자료를 보기 전 지문을 보며 ‘혼자’ 해석을 해본다. 제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해석이 잘 되는가, 객관적으로 본인을 체크한다. 모르는 단어, 잘 안 되는 해석 부분을 체크한다.
4. 자료의 요약, 단어, 변형을 보며 내용, 어휘, 변형 논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자료에 없으나 추가적으로 모르는 단어는 꼭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봐 찾아 적는다.
5. 각 문제 분석 페이지 다음에 있는 해석 공간에서 시간을 재고 해석을 한다. 본인의 실력, 지문의 난이도 및 길이에 따라 한 지문 당 짧게는 5분(1등급)~길게는 10분으로 꼭 시간을 재고 한다. 시간을 재고 해석해야 늘어지지 않고, 집중을 가장 잘한다. 뇌는.
6. 해석을 하다가 10초 정도 고민했으나 모르는 부분, 문장은 ‘비워두고’ 넘어가서 해석을 한다. 우선은 정해진 시간 내에 지문 하나를 다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7. Shean.T의 해석과 비교를 하며 맞추어 보고, 비워둔 부분을 Shean.T 해석과 검색 및 질문을 통해 해결한다. 이 비워둔 부분은 ‘빨강색’ 볼펜으로 채우는 게 좋으며, 그 부분을 본인의 ‘오답 해석 노트’에 옮겨 적는다. 이게 바로 본인의 비장의 노트.
8. 복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 주간의 KISS EBS를 끝내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구두로’ 다시 한 번 지문 해석들을 쭉 해본다. 이러면서 영어 단어, 표현, 문장 구조, 해석 능력이 자꾸 체화가 되는 거다. 한 파트(수특영어 유형편, 주제소재편, 테스트 이렇게 세 개의 파트 정도로 볼 수 있다)가 끝나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 복습 해석!
9. 급격히 향상된 어휘력, 해석력 그리고 EBS 연계의 도움으로 가볍게 1등급을 맞는다.
10. 여러 곳에 감사의 후기를 올려주면 정말 감사하다.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첫번째, ‘순차적으로’부터 살펴보자면,

1. 순차. 영어 한 문장이 있으면, 그 한 문장의 맨 끝을 앞으로 가져오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위, 그 유명한 ‘직독직해’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아래 16학년도 수능 문장을 보시면,

It is likely that age changes begin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at different times and that the rate of annual change varies among various cells, tissues, and organs, as well as from person to person. (15.11.23)

a. 나이 변화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기에 시작하며 매년 변화의 속도 또한 사람마다, 그리고 다양한 세포, 조직, 기관에 따라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X)

b. 가능성이 높다 / 나이 변화가 시작할 / 몸의 다른 부분에서 / 다른 시기에 / 그리고 매년 변화의 속도는 다양할 / 세포, 조직, 기관마다 / 또한 사람들마다. (O)

a의 해석은 사실상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다. 이 일은 번역사가 하는 것이고, ‘독해’를 하는 수험생이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빠르고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이다. 따라서 b와 같이 앞에서부터 쪽 가면서, ‘본인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 구조 단위’로 묶고,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실전적인 해석’이다.

B에서 볼 수 있듯이 포인트는 어떻게 한국어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이 영어 단어와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사를 잘 써야, 단어와 단어, 덩어리와 덩어리가 잘 연결된다. 이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하고, 영어 고정 1등급은 해석을 시켜보면 이걸 잘한다.

‘어디서 끊느냐’ 하는 것에 정답은 없다. 본인이 한 문장이 쪽 한 눈에 들어오고 의미 파악이 된다면 끊을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한 눈에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대충 쪽 가는 것은 킬러 수능 영어 문제를 푸는 데 그리 좋지 않다. 한국어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부분이 제일 좋고, 필자는 전치사, 관계사, 접속사 앞에서 주로 끊는다. 참고!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두번째, '자연스럽게'를 살펴보자면,

2. 자연. 어떠한 단어, 혹은 어떠한 의미 덩어리를 제발 본인이 외운 그 사전의 첫번째 뜻으로 마구 넣어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자. 물론, 우선 해당 단어의 사전 첫번째 뜻을 외우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기는 하다. 하지만 해석을 할 때에는, 그 외운 뜻을 바탕으로 문맥상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전환 과정이 없이 그냥 외운 뜻을 넣기만 하게 되면,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닌 무엇이 되고, 뇌가 어색하게 느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게 된다.

예를 들어, establish라는 단어는 '설립하다'로 외웠을 것이다. 이 '설립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의 기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맥에 따라 '맞는 한국어'로 바꿔 해석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Establish order(질서)라고 했다고 하자. 한국어로, '질서를 설립하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설립은 보통 재단, 기관을 설립하지 질서를 설립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하면서 '질서'와 어울리는 한국말은? 바로 '질서를 확립하다.' 또한, established experts가 있다고 하자. 직역하면 '설립된 전문가들'인데, 역시나 이건 한국어가 아니다. 하지만, '설립된'을 통해 무슨 '느낌'인지는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와 연결시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떠올린다. '이미 설립된.. 이미 세워졌구나.. 전문가가 이미 설립돼서 자리를 잡았어..' 아, '이미 자리를 잡은' 전문가들이구나. '인정 받는', '저명한'까지 가도 우리가 없고 다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이다. '쌘! 저명한이라뇨, prominent가 아닌데요?'라는 우매한 생각에서 벗어나 얼른 '이유 있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다.

해석에 정답은 없다. '어울리는 지 아닌 지'만 있을 뿐.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문장을 보자.

Each year more farmland was devoured to build strip malls and neighborhoods with larger homes. (13.11.43)

매년 더 많은 농경지가 / 게걸스럽게 먹혀진다(?) / 길가 상점들을 짓기 위해 / 그리고 인근에 큰 집들을 짓기 위해

걸리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온다. 농경지가 게걸스럽게 먹혀진다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devour'가 '게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라는 건 이미 외웠어야 한다. 다음 스텝은 이걸 어떻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다. 자 '상황'은 농경지를 상점과 집들로 바꾼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was devoured를 '바꿨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의미가 명확하게 통하니까. 여기에 devour의 느낌까지 살리자면, '농경지를 갈아 엮다'까지 갈 수 있겠다. 황무지를 논으로 바꾸는 뜻이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개간'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 한국어가 좋은 친구들이라면 위의 '바꿨다'는 뜻에서 '전용된다'는 해석도 할 수 있겠다. 정답은 없다. 위와 비슷한 의미로 '본인이' 떠오른 단어를 쓰면 된다. 단,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면 된다. +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려면 'they, them'을 제발 '그들은, 그들을' 그만하고, 뭘지 파악해서 정확히 한국어로 풀어주도록 하자!

명심하자. 영어는 '언어'이고, '상식'이다. 한국어의 상식에서 움직이자.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세번째, '단순하게'를 살펴보자면,

3. 단순. 긴 문장은 정말 길다. 그리고 다른 모의평가도 아닌 '수능'을 보게 되면, 난이도가 쉬워도 대의파악(주제, 제목..)부터 한 지문에 몇 줄이 되는 긴 문장이 꼭 있다. 이렇게 긴 문장에서 보통은 지레 겁먹게 되고, 하나 하나 다 해석하려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더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긴 문장일수록, 어떻게 덩어리로 묶어 '핵심 단어'를 기준으로 '단순화'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빈칸 문장을 살펴보자.

This intentional error functions as an advance warning system, manned by the self-protection subself, providing individuals with a margin of safety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potentially dangerous approaching objects. (13.11.34)

어렵다. 길어도 긴 편이고, 단어도 만만치가 않다. 굳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조기 경보 체계로서, / 자기 보호 자아를 통해 인간이 사용하는, / 인간에게 약간의 안전을 제공하면서 / 직면했을 때 / 위험하게 다가오는 물체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수능 시험장에서 저 문장을 이 정도 수준으로 즉석에서 해석할 수 있는 수험생도 거의 없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오질 않는다. 이 full sentence를 어떻게, 덩어리 별로 핵심 단어를 콕아서, '단순화'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장에 대한 '실전 해석'이다. 이에 따라 재구성 해보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경고 시스템으로 / 인간이 사용하는 / 안전을 제공하면서 / 위험한 물체에 직면했을 때

'진하게' 처리된 단어가 내용 전달의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가 '단순화'하여 이해해야지 만이 읽고나서 무슨 말인지 기억에 남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저에는, 잘 살펴보면, 역시 각 덩어리를 잇는 '조사'에 핵심으로 걸리는 단어를 고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고의적 오류는 기능한다. 뭐로서(as)? 경고 시스템으로서. 뭐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뭘 제공하면서? 안전을. 언제? 위험할 때. 이런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단순화' 해석은 실전적 해석으로, 본인의 해석력을 늘려야 하는 공부에서는(이 EBS 지문을 통한 해석 공부처럼), 웬만하면 단순화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고, 다 자연스럽게 해석해보려 연습하자. 역설적으로,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해석할 줄 알아야, 다 파악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아서, '단순화'한 해석이 된다.

물론 해석력 증진 목적 외에도, '2016학년도~2018학년도'까지, 핵심 어휘 추출, 탁월한 요약, 그리고 검증된 변형 적응을 자랑하는 자료이다. '이런 근거와 논리로 변형 되는 거구나'를 느끼며, 공부하도록 하자. 2018학년도 수능 변형 적응을 감상해보자. 참고로 선별 157지문에서임.

KISS EBS

수능완성 2회: 요약, 40번

g behavior have noticed that some people give **substantial** amounts to one or two charities. Those who donate to one or two charities seek evidence and whether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If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charity make a substantial **donation**. Those who give small amounts to many charities are not so interested in whether what they are **doing** helps others—psychologists call them warm glow givers. Knowing that they are **regardless** of the impact of their donation. In many cases the donation is so small—\$10 or less, they would realize that the cost of **processing** the donation is likely (변란) to **exceed** the benefit.

자선 단체에 거액 기부 vs. B: 많은 단체에 소액 기부. A는 자선단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 필요. Other hand, B는 자신이 기부를 해서 기분이 좋은 거에만 관심 있지. 자선단체의 활동엔 관심 X. 기부 금액이 너무 적음 → 그 금액 처리하는 비용 > 자선단체에 주는 이익

KISS EBS

수특영어 24강: 주제, 4번

and directed by Francis Ford Coppola, **gained popularity**, and with good reason. The film's novel Heart of Darkness, which is set in the African Congo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pocalypse Now** is set in Vietnam and Cambodia during the Vietnam War. The setting, time period, dialogue and other incidental details are changed but the fundamental story line and themes of **Apocalypse Now** are the same as those of **Heart of Darkness**. Both describe a physical journey, reflecting the central character's journey down a river to **confront** the deranged Kurtz character, who represents the worst aspects of war. **Apocalypse Now** a setting that was **contemporary** at the time of its **release**, audiences were able to **confront** the deranged Kurtz character, who represents the worst aspects of war. By giving **Apocalypse Now** a setting that was contemporary at the time of its release, audiences were able to experience and identify with its themes more easily than they would have if the film had been (변란) a **literal adaptation** of the novel.

Now(지옥의 묵시록)이란 영화는 소설을 각색한 것이었으나 소설과 배경이 달랐음. 같은 부수적인 디테일은 달랐으나 기본 스토리라인은 소설과 같았음. 시에 어울리는 배경을 설정함으로써, 관중들이 더 쉽게 몰입할 수 있게 한 것!

Cause: 소설을 그대로 각색 X, 시대를 영화에 맞게 설정 → Effect: 관객이 더 몰입 가능. 왜이리... 여러번도 보세요 ㅎㅎ

1. 원작을 엮다 2. adaptation: 각색 3. original: 원작의 4. incidental: 부수적인 5. confront: 대면하다 6. civilization: 문명 7. contemporary: 동시대의 8. release: 출시, 개봉 9. literal: 직설적 10. literal: (말) 그대로의

2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점]

Psychologists who study giving behavior ① have noticed that some people give substantial amounts to one or two charities, while others give small amounts to many charities. Those who donate to one or two charities seek evidence about what the charity is doing and ② what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If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charity is really helping others, they make a substantial donation. Those who give small amounts to many charities are not so interested in whether what they are ③ doing helps others—psychologists call them warm glow givers. Knowing that they are giving makes ④ them feel good, regardless of the impact

31. *Apocalypse Now*, a film produced and directed by Francis Ford Coppola, gained widespread popularity, and for good reason. The film is an adaptation of Joseph Conrad's novel *Heart of Darkness*, which is set in the African Congo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Unlike the original novel, *Apocalypse Now* is set in Vietnam and Cambodia during the Vietnam War. The setting, time period, dialogue and other incidental details are changed but the fundamental narrative and themes of *Apocalypse Now* are the same as those of *Heart of Darkness*. Both describe a physical journey, reflecting the central character's mental and spiritual journey, down a river to confront the deranged Kurtz character, who represents the worst aspects of war. By giving *Apocalypse Now* a setting that was contemporary at the time of its release, audiences were able to experience and identify with its themes more easily than they would have if the film had been (변란) a literal adaptation of the novel. [3점]

* deranged: 제정신이 아닌

- ① a critical interpretation of contemporary civilisation
- ② a vivid dramatisation of a psychological journey
- ③ a faithful depiction of the Vietnam War
- ④ a source of inspiration for the novel
- ⑤ a literal adaptation of the novel

KISS EBS

수능완성 10강: 어휘, Check

food preferences? Both humans and rats have evolved taste preferences for sweet foods, which provide rich sources of calories. A study of food preferences among the Hadza hunter-gatherers of Tanzania found that honey was the most highly preferred food item, an item that has the highest caloric value. Human newborn infants also show a strong preference for sweet liquids. Both humans and rats dislike bitter and sour foods, which tend to contain toxins. They adaptively adjust their eating behavior in response to deficits in water, calories, and salt. (Experiments have shown that humans and rats exhibit an immediate liking for salt the first time they experience a salt deficiency.) They likewise increase their intake of sweets and water when their energy and fluids become depleted. These appear to be specific evolved mechanisms, designed to deal with the adaptive problem of food selection, and coordinate consumption patterns with

간과 쥐는 칼로리가 높은 단 음식은 선호하나, 독성 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쓰거나 신 음식은 싫어함. 또한 수분, 염분, 당분이 부족할 땐 각각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식습관 바꿈. 이는 진화하며 생긴 기제로, 음식 선택 문제 및 필요에 따라 소비를 맞추기 위한 것

변형: 문장 삽입. 삽입 문장 앞 뒤 문장의 they가 각각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고, 삽입 문장 다음 문장의 likewise(미친가지로)라는 표현으로 삽입 문장과 다음 문장 둘다 '부족분에 적응한 사례'를 보여주어야 한 다. 소재, 섹스(likewise 활용), 근거가 좋은 삽입 문제!

KISS EBS

수특영어 Test2: 문장 삽입, 21번

Some prominent archaeologists say that archaeologists should work with treasure hunters because treasure hunters have accumulated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that can reveal much about the past. But archaeologists are not asked to cooperate with tomb robbers, who also have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The quest for profit and the search for knowledge cannot coexist in archaeology because of the (A) time factor. Rather incredibly, an archaeologist employed by a treasure hunting firm said that as long as archaeologists are given six months to study shipwrecked artifacts before they could even catalog all the finds from an excavation, they would never have learned the true nature of the site. Could a commercial archaeologist excavate or so before selling the finds? (B) lost! On the contrary, archaeologists from the INA (Institute of Nautical Archaeology) needed more than a decade of year-round conservation before they could even catalog all the finds from an eleventh-century AD wreck they had excavated. Then, to interpret those finds, they had to learn Russian, Bulgarian, and Romanian, without which they would never have learned the true nature of the site. Could they have learned the true nature of the site. Could they have learned the true nature of the site. Could they have learned the true nature of the site.

몇 언론인들은 고고학자들이 보물 사냥꾼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굴꾼과 하하고 하진 않음. (적인 요소로 이론 추와 지식 추구는 고고학에서 공존 불가) (C) interpret / market(시장에 내놓다)

어휘. (A) time / risk(위험), (B) lost / found(발견된), (C) interpret / market(시장에 내놓다)

!의 길이, 구조, 소재, 섹스, 뱀을 때 참 좋은 어휘 문제 ☺

38.

Experiments show that rats display an immediate liking for salt the first time they experience a salt deficiency.

Both humans and rats have evolved taste preferences for sweet foods, which provide rich sources of calories. A study of food preferences among the Hadza hunter-gatherers of Tanzania found that honey was the most highly preferred food item, an item that has the highest caloric value. (①) Human newborn infants also show a strong preference for sweet liquids. (②) Both humans and rats dislike bitter and sour foods, which tend to contain toxins. (③) They also adaptively adjust their eating behavior in response to deficits in water, calories, and salt. (④) They likewise increase their intake of sweets and water when their energy and fluids become depleted. (⑤) These appear to be specific evolved mechanisms, designed to deal with the adaptive problem of food selection, and coordinate consumption patterns with

2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Some prominent journalists say that archaeologists should work with treasure hunters because treasure hunters have accumulated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that can reveal much about the past. But archaeologists are not asked to cooperate with tomb robbers, who also have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The quest for profit and the search for knowledge cannot coexist in archaeology because of the (A) time factor. Rather incredibly, one archaeologist employed by a treasure hunting firm said that as long as archaeologists are given six months to study shipwrecked artifacts before they are sold, no historical knowledge is (B) found! On the contrary, archaeologists and assistants from the INA (Institute of Nautical Archaeology) needed more than a decade of year-round conservation before they could even (C) catalog all the finds from an eleventh-century AD wreck they had excavated. Then, to interpret those finds, they had to (D) learn Russian, Bulgarian, and Romanian, without which they would never have learned the true nature of the site. Could they have learned the true nature of the site. Could they have learned the true nature of the site. Could they have learned the true nature of the site.

해당 자료의 지문 자체를 제외한 모든 내용
즉, 요약, 변형 포인트, 어휘 정리, 직독직해의 내용은
Shean.T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Shean.T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특히,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한 부’만 구매한 뒤
이를 출력하여 다수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사교육이지만 그래도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제해주시고,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다수에게 이 자료를 배포할 경우,
인원수만큼 구입을 하시거나,
sheanlee23@gmail.com으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혹 본인이 다니는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위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필자가 잘 못 먹고, 잘 못 자기면서 만든 창작물을,
단지 전자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구매한 인증샷을 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해당 자료에 해당하는 저자의 무료 강의를 유튜브에서 열어드립니다.
단, 보내는 사람도 ‘Gmail’로 보내주셔야,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Shean's KISS EBS

수특영어 21강: 어법, 1번

The scientific possibility that human activities might cause significant warming of the earth's atmosphere has been recognized since the 19th century. That this might be important **practically** was first **signalled** by James Hansen and his colleagues in a 1981 paper in which they predicted that anthropogenic warming should begin to be **detectable over and above** natural climate **variability**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t the time of **publication**, I was a **civil servant** in the then Department of Energy. I recall Bill Burroughs, a colleague, and ex-scientist like myself, mentioning this paper over lunch. Bill had been a researcher in **atmospheric** physics and has since published a number of popular science books on the weather and climate. We could see that this forecast of climate change might be the beginning of something important, although when it might begin to impact on policy thinking was hard to guess. * anthropogenic: 인간에 의해 야기된

Summary

1. 19세기 후 Hensen 형도 얘기했듯이 인간 활동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시화 되고 있음
2. Hensen 형이 논문 냈을 때 동료이자 전직 과학자인 Bill이 이에 관해 얘기함
3. 기후 변화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언제 나올 지는 의문

KEY Point

1. 횡설수설 쩌다 just no structure

Vocabulary

1. practically: 실제로
2. signal(v): 시사(암시)하다
3. detectable: 탐지 가능한
4. over and above: ~외에도
5. variability: 가변성
6. publication: 출판, 출시
7. civil servant: 공무원
8. atmospheric: 대기의

The scientific possibility that human activities might cause significant warming of the earth's atmosphere has been recognized since the 19th century. That this might be important practically was first signalled by James Hansen and his colleagues in a 1981 paper in which they predicted that anthropogenic warming should begin to be detectable over and above natural climate variability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t the time of publication, I was a civil servant in the then Department of Energy. I recall Bill Burroughs, a colleague, and ex-scientist like myself, mentioning this paper over lunch. Bill had been a researcher in atmospheric physics and has since published a number of popular science books on the weather and climate. We could see that this forecast of climate change might be the beginning of something important, although when it might begin to impact on policy thinking was hard to guess. * anthropogenic: 인간에 의해 야기된

과학적 가능성은 / 인간의 활동이 지구 대기의 심한 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 인지되어 왔다 / 19세기 후로. / 이러한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 사실상 처음으로 Hanse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 1981년 논문에서 / 이들이 예측한 / 인간에 의해 야기된 온난화가 탐지 가능하기 시작할 거라고 / 자연 기후의 가변성 이외에도 / 20세기 말에. / 논문 공표 시기에, / 나는 그 당시 에너지자원부처의 공무원이었다. / 나는 동료이자 나처럼 과학자였던 Bill을 기억한다 / 이 논문을 점심 먹으며 언급한 것을. / Bill은 대기 물리학의 연구자였고 / 그 후 수 많은 인기를 끌었던 과학 서적을 출판하였다 / 날씨와 기후에 관한. / 우리는 알 수 있다 / 이러한 기후 변화 예측이 무언가 중요한 것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 이 기후 변화가 언제 정책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 예측하기 어렵지만.

Shean's KISS EBS

수특영어 21강: 순서, 2번

Sustainability can be seen as balancing three kinds of capital value — social, material and natural. Natural capital includes **biodiversity** at all its levels. **Material capital consists of** money, and built and manufactured objects. Social capital is invested in health, education and social organisation. Three major branches of science **inform** our understanding of these issues: ecology, economics and politics. Much of the challenge in sustainable development demands the **reform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three. The natural environment is frequently ignored or **undervalued** in much economic and political analysis. Particular decisions might be supported by **cost-benefit analysis** but future costs arising from damage to natural capital are often ignored. Political systems frequently **favour** such **flawed decision-making** because it offers **seemingly** good value to the **beneficiaries**. Environmental **degradation** generally occurs because a powerful lobby is getting something **for nothing**.

Summary

1. 지속가능성: 사회자본, 유형자본, 자연자본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 셋의 관계 개선이 필요
2. 셋 중 자연자본이 보통 무시됨
3. 정치 시스템 또한 자연자본을 무시하게 되고, 강력한 로비로 환경 문제 더 심각해짐

KEY Point

1. 평가원의 관점에서선 건질 게 없으나 단어들이 관춘하므로 어휘력 및 내신으로는 챙기도록 하자 ^^

Vocabulary

1.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2.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3. material capital: 유형자산
4. consist of: ~로 구성되다
5. inform A of B: A에 B를 알리다
6. reformation: 개혁, 개선
7. undervalued: 저평가된
8. 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 분석
9. favor(v): 선호하다
10. flawed: 결점 있는
11. decision-making: 의사결정
12.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
13. beneficiary: 수혜자
14. degradation: 타락, 저하
15. for nothing: 공짜로

Sustainability can be seen as balancing three kinds of capital value — social, material and natural. Natural capital includes biodiversity at all its levels. Material capital consists of money, and built and manufactured objects. Social capital is invested in health, education and social organisation. Three major branches of science inform our understanding of these issues: ecology, economics and politics. Much of the challenge in sustainable development demands the reform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three. The natural environment is frequently ignored or undervalued in much economic and political analysis. Particular decisions might be supported by cost-benefit analysis but future costs arising from damage to natural capital are often ignored. Political systems frequently favour such flawed decision-making because it offers seemingly good value to the beneficiaries. Environmental degradation generally occurs because a powerful lobby is getting something for nothing.

지속가능성은 보여질 수 있다 / 세 종류 자본 가치의 균형을 잡는 것으로 - 사회적, 유형적 그리고 자연적. 자연자본은 생물다양성을 포함한다 / 모든 수준에서의. / 유형자본은 구성된다, / 돈과 제조된 물체들로. / 사회자본은 투자된다 / 복지, 교육 그리고 사회 조직에. / 학문의 세 가지 주요 분야는 우리의 이해에 전달한다 / 이러한 이슈들을: 생태학, 경제학 그리고 정치학. / 지속가능 개발의 많은 도전 과제는 필요로 한다 / 이 세 가지의 관계 개선을. / 자연 환경은 보통 무시되거나 평가 절하된다 / 많은 경제적, 정치적 분석에서. / 특정한 결정들은 뒷받침될 수 있다 / 비용-이익 분석으로 / 하지만 미래 비용은 / 자연자본에 대한 피해로 발생한 / 종종 무시된다. / 정치 체계는 자주 선호한다 / 이렇게 결점이 있는 의사결정을 /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수혜자에게. / 환경적 저하는 보통 발생한다 / 강력한 로비가 공짜로 무언가를 얻기 때문에.

Shean's KISS EBS

수특영어 21강: 어법, 3번

In a 2008 National Geographic article, Verlyn Klinkenborg noted, "Of all the pollutions we face, **light pollution** is perhaps the most easily **remedied**." Returning the night sky to its natural state is as simple as thoughtful **placement** of outdoor lighting: putting light where it's needed and darkening areas where it's not. Solutions are available and possible to **implement**. Moreover, these solutions are guided by principles and technology that save energy, **conserve** resources, and restore ecosystems. Light pollution is controlled by **maximizing** efficiency, improving security, and creating a more **aesthetically pleasing** nocturnal environment. When we **eliminate** unnecessary light at night in our communities, we also conserve resources, lower cost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f only the other serious environmental issues facing the globe were this easy and **rewarding** to solve!

* nocturnal: 야간의

Summary

1. VK 형이 얘기 했듯 광공해 문제는 가장 해결하기 쉬움!
2. 광공해 해결은 자원 보존, 비용 절감, 생태계 및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됨
3. 다른 환경 문제도 광공해 해결처럼 좀 쉬우면 좋으련만..

KEY Point

1. Earth Hour라는 캠페인: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1시간 동안 지구를 위해 모든 불빛을 끄는 운동 ㅇㅇ! 대학 가서 동아리 가입해서 같이 참여하면 참 의미 있는 활동이니 꼭 해보세요 ☺

Vocabulary

1. light pollution: 광공해
2. remedy(v): 치료하다, 해결하다
3. placement: 배치
4. implement: 시행하다
5. conserve: 보존하다
6. maximize: 극대화하다
7. aesthetically: 미학적으로
8. pleasing: 기분 좋은
9. eliminate: 제거하다
10. rewarding: 보람찬

In a 2008 National Geographic article, Verlyn Klinkenborg noted, "Of all the pollutions we face, light pollution is perhaps the most easily remedied." Returning the night sky to its natural state is as simple as thoughtful placement of outdoor lighting: putting light where it's needed and darkening areas where it's not. Solutions are available and possible to implement. Moreover, these solutions are guided by principles and technology that save energy, conserve resources, and restore ecosystems. Light pollution is controlled by maximizing efficiency, improving security, and creating a more aesthetically pleasing nocturnal environment. When we eliminate unnecessary light at night in our communities, we also conserve resources, lower cost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f only the other serious environmental issues facing the globe were this easy and rewarding to solve!

* nocturnal: 야간의

2008년 이 기사에서 VK는 말했다, / “우리가 직면한 모든 공해 중, / 광공해가 아마도 가장 쉽게 해결될 것이다.” / 밤하늘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은 / 간단하다 / 실외 조명을 잘 배치하는 것만큼이나: / 필요한 곳에 빛을 두고 / 필요하지 않은 곳에 어두운 곳을 두는 것이다. / 해결책은 바로 이용 가능하고 / 시행 가능하다. / 게다가, 이러한 해결책들은 원리와 기술로 설명된다 /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회복하는. / 광공해는 조절된다 /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고, 예술적으로 더 보기 좋은 밤 풍경을 만듦으로써. / 우리가 밤에 불필요한 빛을 제거할 때 / 우리 사회에서, / 우리는 또한 자원을 보존하고, 비용을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다른 심각한 환경문제도 / 지구가 직면한 / 이렇게 쉬웠으면 / 그리고 해결하기 보람찼으면! 좋겠다!

Captive breeding programs and laws such as the Endangered Species Act are a kind of first aid measure in global efforts to protect species. They can **be thought of as emergency measures** needed to preserve the planet's **biodiversity**. They're similar to the kinds of treatment a heart attack patient receives in an emergency room of a hospital. An emergency room **physician** may save a patient **suffering from** a heart attack, but unless the patient diets, exercises, quits smoking, and learns to handle stress, he or she is not likely to survive very long. **By the same token**, emergency measures are not enough to ensure a **diverse**, biologically rich world. To achieve this goal, **preventive measures** are needed. Like other environmental problems, this one can be **addressed** by slowing, even **halting**, the growth of the human population and a fundamental redesign of human systems such as agriculture, energy, industry, and waste management.

* captive breeding: (야생동물의) 포획 사육

Summary

1. 포획 사육 프로그램은 멸종 위기 종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일 뿐임
2. 멸종 위기 종 보호를 위해서는 '예방 대책'이 필요함. 인간의 인구와 활동을 제한해야 함

KEY Point

1. 넘나 무난한 것

Vocabulary

1. be thought of as N: ~로 간주되다
2. emergency measures: 긴급 대책
3.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4. physician: 내과 의사
5. suffer from N: ~로 고통받다
6. by the same token: 마찬가지로
7. diverse: 다양한
8. preventive measures: 예방 대책
9. address(v): (문제를) 다루다
10. halt: 중단하다

Captive breeding programs and laws such as the Endangered Species Act are a kind of first aid measure in global efforts to protect species. They can be thought of as emergency measures needed to preserve the planet's biodiversity. They're similar to the kinds of treatment a heart attack patient receives in an emergency room of a hospital. An emergency room physician may save a patient suffering from a heart attack, but unless the patient diets, exercises, quits smoking, and learns to handle stress, he or she is not likely to survive very long. By the same token, emergency measures are not enough to ensure a diverse, biologically rich world. To achieve this goal, preventive measures are needed. Like other environmental problems, this one can be addressed by slowing, even halting, the growth of the human population and a fundamental redesign of human systems such as agriculture, energy, industry, and waste management.

* captive breeding: (야생동물의) 포획 사육

포획 사육 프로그램과 법률은 / 멸종 위기법과 같은 / 하나의 응급 조치이다 / 종 보호를 위한 세계적 노력의. / 이러한 프로그램과 법률은 간주될 수 있다 / 긴급 조치로 / 지구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필요한. / 이 프로그램들은 치료의 종류랑 비슷하다 / 심장마비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받는. / 응급실 의사는 환자를 구할 수도 있다 / 심장마비에서 고통받는, / 하지만 그 환자가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하고, 금연하고, 스트레스 조절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 그 환자는 그렇게 오래 살 지는 못 할 것이다. / 같은 이유에서, / 응급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 다양하고, 생물적으로 풍부한 세상을 보장하는 데에. / 이러한 목표를 이루려면, /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 다른 환경 문제와 마찬가지로, / 이는 다뤄질 수 있다 /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함으로써 / 인구 성장을 / 그리고 인간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통해서 / 농업, 에너지, 산업,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같은.